

2011년 10월 31일 보낸 편지입니다.(3,237조회)

선수와 코치
選手とコーチ

아무리 뛰어난
いくら秀でた

선수에게도 코치가 있습니다.
選手にもコーチがいます

아무리 위대한 사람에게도 멘토가 있습니다.
いくら偉大な人にもメンターがいます

그들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려주고,
彼らは私が聞きたくない言葉を聞かせて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고,
見たくない私の姿を見せてくれて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합니다.
私が望まないことをするようになります

- 조정민《사람이 선물이다》중에서 -
- チョ・ジョンミンの<人が贈り物だ>より -

* 선수와 코치는 한 몸입니다.
* 選手とコーチは一体です

둘이면서 하나인 공동 운명체입니다.
二人でひとつの運命共同体です

고락을 함께 하고, 희망을 함께 합니다.
苦楽を共にして、希望を共にします

어떤 코치,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
どんなコーチ、どんなメンターにあうかによって

자기 능력을 열 배, 백 배 높일 수 있습니다.
自分の能力を10倍、100倍に高めることができます

두 사람이 합심하면 못 이룰 것이 없고,
二人が心を合わせれば、できないことはなく

합심하면 이루지 못해도
心を合わせれば、かなわなくても

아름답습니다.
美しいです。

들려-주다

1. [타동사] 聞かせる。

합심 [合心]

1. [명사·하다형 자동사] 心を合わせること; 心を一つにすること。

2011년 11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2,500조회)

땀과 눈물과 피의 강
汗と涙と血の川

꿈꿀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夢見ることができるのは可能です

그러나 꿈이 현실을 향해 건너야 할 강은 늘...
しかし、夢が現実に向かって渡らなければならない川はいつも...

땀과 눈물과 피의 강입니다.
汗と涙と血の川です

- 조정민《사람이 선물이다》중에서 -
- チョ・ジョンミンの〈人が贈り物だ〉より -

* 땀과 눈물과 피뿐만이 아닙니다.
* 汗と涙と血だけではありません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 절대고독과 고통의 강도
誰も代わってくれない絶対孤独と苦痛の川も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도 기꺼이 강을 건너는 것은
わた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も喜んで川を渡ることは

누군가는 강 건너 저편에 아름다운 '희망꽃'을
誰かは、川を渡って、彼方の美しい希望の花を

심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植えておかねばならないからです。だから

오늘도 웃으며 그 강을 건너갑니다.
今日も笑ってその皮をわたって行きます

かなた [彼方]

1. [대명사] 『문어』 저쪽. 저편. 저기.

2011년 11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2,838조회)

소화를 잘 시키려면
消化をちゃんとさせようとするば

소화는 위장이 아니라
消化は胃腸ではなく

마음이 하는 것이다. 마음이 편하면
心がするのだ。心が楽なら

얼굴이 퍼지는 것처럼 위의 주름도 퍼진다.
顔が伸びるように、胃のしわも伸びる

우리 몸은 기분이 좋아야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我々の体は気分がよくて、胃腸が活発に動いて

위액 분비와 위벽의 혈액순환도 좋아진다.
胃液の分泌と胃液の血液循環もよくなる

즐거운 상대가 훌륭한 밥이고
楽しい相手が、立派なご飯で

부담되지 않는 화제가
負担にならない話題が

좋은 반찬이다.
よいおかずだ

- 이병욱의《내일도 내 삶은 눈부시다》중에서 -
- イ・ピョンオクの<明日も私の人生はまぶしい>より -

* 음식 먹고 소화가 안되면
* 食べ物を食べて消火がよくなっても

차라리 먹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いっそ食べないことだけはできません

조미료 없는 음식, 재료가 좋아야 소화가 잘 됩니다.
調味料のない食べ物、材料がよいと消化がよくなります

그러나 좋은 사람과 함께 먹는 것, '즐거운 상대'보다
しかし、いい人と共に食べる'楽しい相手'より

더 좋은 소화제는 없습니다.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さらによい消化剤はありません。すばらしいご馳走でなくても

무얼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먹을 때마다
何を食べても消火がよくなります。食べるたびに

즐겁고 행복합니다.
楽しく幸せです

펴:지다
1. [자동사] 広がる; 開く; 伸びる。
주름

1. [명사] 皺。
2. [명사] ひだ; 折り目。
홀름-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立派だ。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堂々として美しい。
진수-성찬 [珍羞盛饌]
1. [명사] すばらしい御馳走。

2011년 11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3,550조회)

치료사는 왜 말을 아끼는 걸까?
治療士はなぜ言葉を惜しむのか?

치료사는 왜 말을 아끼는 걸까?
治療士はなぜ言葉を惜しむのか?

치료 관계는 사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治療関係は社交的關係ではなく

전문적 관계이다. 치료사의 임무는
専門的關係だ。治療士の任務は

감정의 중립성을 견지함으로써
感情の中立性を堅持することで

환자의 드러나는 참 자기를
患者の現れる本当の自分を

수호하는데 있다.
守ることにある

- 제임스 F. 매스터슨의《참 자기》중에서 -
- ジェームス・F. マスターソンの〈真の自分〉より -

* 말을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 言葉を惜しむことに終わりはありません

말을 삼킬 줄 알아야 진정한 치료사입니다.
言葉を飲み込みこめて、本当の治療士です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처럼 환자의 아픈 상처를
告解の秘跡を聞いた神父のように、患者の痛い傷を

무덤까지 삼키고 가야 합니다. 치료사가
墓まで飲ん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治療士が

입을 열면 환자는 부끄러워지고,
口を開けば、患者は恥ずかしくなって

치료사 자신은 전문가의
治療士自身は専門家の

자격을 잃게 됩니다.
資格を失うようになります。

아끼다

1. [타동사] やたらに扱わない; 惜しむ; 節約する; 大切に使う。
2. [타동사] 大切にする; 尊重する; 重んじる。

사교-적 [社交的]

1. [관형사·명사] 社交的。

견지 [堅持]

1. [명사·하다형 타동사] 堅持; 一度決めたことをかたく守ること; 考えや態度をかたく守って動じないこと。

드러-나다

1. [자동사] 現れる; 表われる。
2. [자동사] 見えなかったものが見えてくる; 露出する。

참1

1. [명사] 誠; 眞実。
2. [명사] 偽りでないこと。

그치다1

1. [자동사] 止む; 止まる; 終わる; 途絶える。

삼키다

1. [타동사] 飲み下す; 飲み込む; 飲む。
2. [타동사] 人の物を横取りする; 横領する; 着服する。

고해성사 [告解聖事]

1. [명사] 『가톨릭』「告解の秘跡」の旧称。

무덤

1. [명사] 墓; 墳墓; 塚。

告解(こっかい・こくかい[1]、ラテン語: Confessio (atque poenitentia), 英語: Penance (or Confession), ロシア語: Исповедь)とは、キリスト教の幾つかの教派において、罪の赦しを得るのに必要な儀礼や、告白といった行為をいう。教派ごとに概念や用語が異なっている。カトリック教会および正教会では、教義上サクラメントと捉えられているが、聖公会では聖奠的諸式とされる[2]。プロテスタントではサクラメントとは看做されていない。

「告解」は明治時代から多くの教派で使われてきた表記であるが、2011年現在ではいずれの教派においても日常的な語彙ではなく、殆どの場合で異なる語彙の方が、正式な呼称、もしくは通用性の高い呼称としての扱いを受けている。

James F. Masterson

2011년 11월 4일 보낸 편지입니다.(1,302조회)

마법의 장소
魔法の場所

“마법의 장소들은
”魔法の場所は

언제나 지극히 아름답고,
いつもこの上なく美しく

하나하나 음미해야 마땅하지.
一つ一つ吟味するのは当然だ

샘, 산, 숲, 이런 곳에서 대지의 정령들은
泉、山、森、そんなところに大地の精霊たちは

장난을 치고, 웃고, 인간에게 말을 걸어.
いたずらをして、笑って、人間に言葉をかける

당신은 지금 성스러운 곳에
君は今神聖なところに

와 있는 거야.”
きているのだ”

- 파울로 코엘료의 《브리다》중에서 -
- パウロ・コエーリオの<ブリーダ>より -

* 나만의 마법의 장소.
* 私だけの魔法の場所

모든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すべての憂いをおろすことができる場所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치유받는 곳,
自ら慰労されて、自ら治癒されるところ

서로 사랑하고, 함께 꿈꿀 수 있는 공간,
お互いを愛して、共に夢見る空間

그런 마법의 장소가 나에게 있으면
こんな魔法の場所が私にあれば

모든 시름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総ての憂いも、喜びに代わります

거룩하고 성스러워집니다.
神々しく神聖になります

지극-히 [至極-]

1. [부사] 至極; この上もなく。

음미 [吟味]

1. [명사·하다형 타동사] 吟味。

2. [명사·하다형 타동사] 詩を吟じながらその意味の深さを味わうこと。

대:지 [大地]

1. [명사] 大地; 広大な土地。

2. [명사] 墳墓としてよい土地。

장난

1. [명사·하다형 자동사] 悪ふざけ; いたずら; やんちゃ; おいた。

2. [명사·하다형 자동사] 遊び; 戯れ。

いたずらをして-は叱られた → て-は

장난을 치고는 야단을 맞았다.

성:서 [聖書]

[명사]

1. 聖書。

2. 聖書; バイブル。

시름

1. [명사·하다형 타동사] 憂い; 愁い; 心配; 不安; 悩み; 物思いに沈むこと。

거:룩-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神々しい; 神聖だ; 尊い; 立派だ; 偉大である。

성:-스럽다 [聖-]

1. [형용사·부 불규칙 활용] 高潔で厳肅である; 神聖である; 神々しい。

2011년 11월 5일 보낸 편지입니다.(1,171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재홍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ジェフ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실패 앞에서 웃어야 하는 이유
失敗を前に笑わ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

단 한 번의 실패로
たった一回の失敗で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人生の奈落到ちるのはよくないです

‘완전한 실패’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完全な失敗’はほとんどないといってもよいです

숨이 붙어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기회는
息を弾ませた希望を捨てない限り機会は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またきます。それにもかかわらず人生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失敗に終わる場合があります

바로 실패가 두려워 더 이상
まさに失敗が恐ろしくてこれ以上

‘실패하기’를 멈추었을
‘失敗すること’をとめた

때입니다.
ときです

- 설기문의《너에게 성공을 보낸다》중에서 -
- ソル・ギムン<君に成功を送る>より -

* 만약 누군가의 성공이
* もし誰かの成功が

기회를 잘 잡은 것처럼 보였다면,
機会をよくつかんだように見えたら

그 기회 이전의 땀과 노력, 숭한 실패를
その機会が以前の汗と努力、あまたの失敗を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ちゃんと見てないからである可能性が高いです。

한 번만 더 실패하고 나면 이제 성공일 텐데,
もう一度だけ失敗すれば、もう成功するのに

20111105.txt

성공의 직전에서 멈추고 말았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成功の直前で止まってしまったら、どれだけ悔しいでしょうか?

이것이 바로 실패 앞에서도 웃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そこがまさに失敗の前でも笑わ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です

はずむ [彈む]

1. [5단 활용 자동사] 숨이 거칠어지다. 숨이 가빠지다.

2. [5단 활용 자동사] 들뜨다. 탄력이 붙다. 신이 나다. 【문어 4단 활용 동사】

술-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物の嵩や分量が多い; 数多い; たくさんだ; たっぷりだ; ありふれている; いくらでもある。

제-대로

1. [부사] 完全に整っているさま:ちゃんと; きちんと; 立派に; よく。

2. [부사] 思うままに; 好都合に; うまく; 十分に。

이제

1. [명사] 現在; ただいま。

2. [명사] 今の時代; 現代; 現今。